마음은 '초록샤워' 몸은 '웰빙푸드' … 치유의 바다

율포해수욕장에서 '다향길'을 따라 30여 분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차로 5분) 군농리 금광마을이 나온다. 방조제를 따라 해안에 툭 튀어나온 마을 보호수를 향해 걷다보면 득량만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득량만 바다 옆에 끼고 쉬엄쉬엄…생태문화 탐방로 '다향길 2구간'

여름에는 새꼬막·가을에는 전어·뻘낙지 … 다 내어주는 보물창고

때로는 쉼이 필요하다.

젊음이 넘치는 해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차분하게 수평선을 마주하고 싶을 때처럼 말이다.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다향길'을 따라 30여 분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 회천면 군농리 금광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율포해수욕장에서 서당리까지 가는 다향길 2구간(7.7㎞)의 중간 정도에 있다. 생태문화 탐방로 '다향길'은 득량만 정취를 오롯이 느끼기에 손색없는 해변길이다.

총연장 42.195㎞ 4개 구간으로 만들어진 다향길에서 2구간은 휴식을 담당한다.

1.2㎞ 펼쳐진 백사장에 이어 바닷가를 따라 만들어진 1.6㎞의 지압로를 밟고, 바지락과 작은 게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개펄도 거친다. 고즈넉한 어촌 마을의 풍경은 산책길의 눈요깃거리다. 어른 키보다 높은 바위와 아기자기한 몽돌이 물결에 맞춰 서로 비비대는 풍광에서는 이 마을이 겪었을 억겁의 세월이 느껴진다.

다향길은 차소리문화공원주차장~봇재다원~영천제~정응민 생가~제2다원~팽나무외줄기군락지~명교리해수욕장~율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1구간(16.5㎞·5시간), 서당리~공룡알화석지~선소어촌체험장~비봉공룡공원으로 통하는 3구간(9㎞·4시간), 공룡공원~원곡마을~득량만 방조제로 끝맺는 4구간(9㎞·4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금광마을의 진가는 태양이 득량만 바다에 미광을 비출 때 나온다. 내공 있는 사진작가들은 한 번쯤 이곳의 일출을 앵글에 담아가곤 한다. 율포에서 하룻밤 묵은 여행객들이 아침 마실에 우연히 금광마을에 다다라 발길을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들은 "왜 이런 보물 같은 마을이 숨겨져 있냐"는 관광객들의 애먼 핀잔을 듣기도 한다.

33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인근 신촌·동백·군지마을과 '군농 1구'를 이루고 있다. 군농 1구의 300여 주민 대부분은 50~90대로, 마을 간 왕래가 잦다.

보성 읍내에서 시집 와 15년 간 금광마을에서 살아온 신연옥(58)씨는 주변 사람들 말로 '신식 생활'을 즐기고 있다.

"친정이 보성역 쪽인데 요새 우리 마을도 많이 나아져서 친정 생각이 덜 나요. 오전에는 마을을 한 바퀴 거닐고 오후에는 율포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하곤 해요. 방학을 맞아 손주들이 오면 율포에서 물놀이하고 우리 마을에서 갯벌 체험하는 게 정석이랍니다. 올해 91세 된 마을 최고령 할머니처럼 조그마한 밭 일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8월의 따가운 햇볕을 피해 새벽에 일을 마친 주민들은 마을 보호수가 있는 평상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눈다.

온통 은빛과 연하늘색을 발하는 해안에 우뚝 솟은 팽나무를 보고 있자니 마치 외딴 섬처럼 보인다.

마을 토박이 조귀득(80)씨는 낯선 외지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냈다. 조씨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을린 손은 뼈마디가 굵었다.

"여름에는 새꼬막, 가을에는 전어와 뻘낙지를 잡으며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다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지금은 이 마을의 풍경처럼 시간이 멈춰있는 것만 같아요. 코흘리개 때부터 함께한 이 나무랑 늙어가는 수밖에요."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서금열 어촌계장

"텃세 없는 우리 마을 누구나 환영 합니다"

금광마을 방파제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금열(62) 어촌계장의 포도나무집이 있다.

그는 3년째 회천면 군농리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 득량만 뻘낙지 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군농 어촌계원들은 '영어법인 보성낙지통발 자율공동체'를 만들었다.

예순이 넘었지만 '은퇴'는 먼 일이다.

서 계장을 만난 8월 한낮에도, 그는 뙤약볕 바다 한 가운데 있었다. 낙지·전어 등 득량만 바다 대표 수산물을 수확하는 그는 새꼬막 종표도 직접 키워내고 있다.

햇볕에 한껏 붉어진 얼굴로 취재진을 맞이한 그는 어구를 정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금광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는 20대 시절부터 광주에서 사업을 하다 1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윗집에는 형님네, 아랫집에는 막내가 살며 삼형제가 한 마을에서 오손도손 지내고 있다. 손수 지은 집 담벼락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는 여름을 알리고, 동백꽃은 이른 봄의 시작을 전한다.

인구 감소로 심각해진 '어촌 빈집 문제'는 서 계장에게 남의 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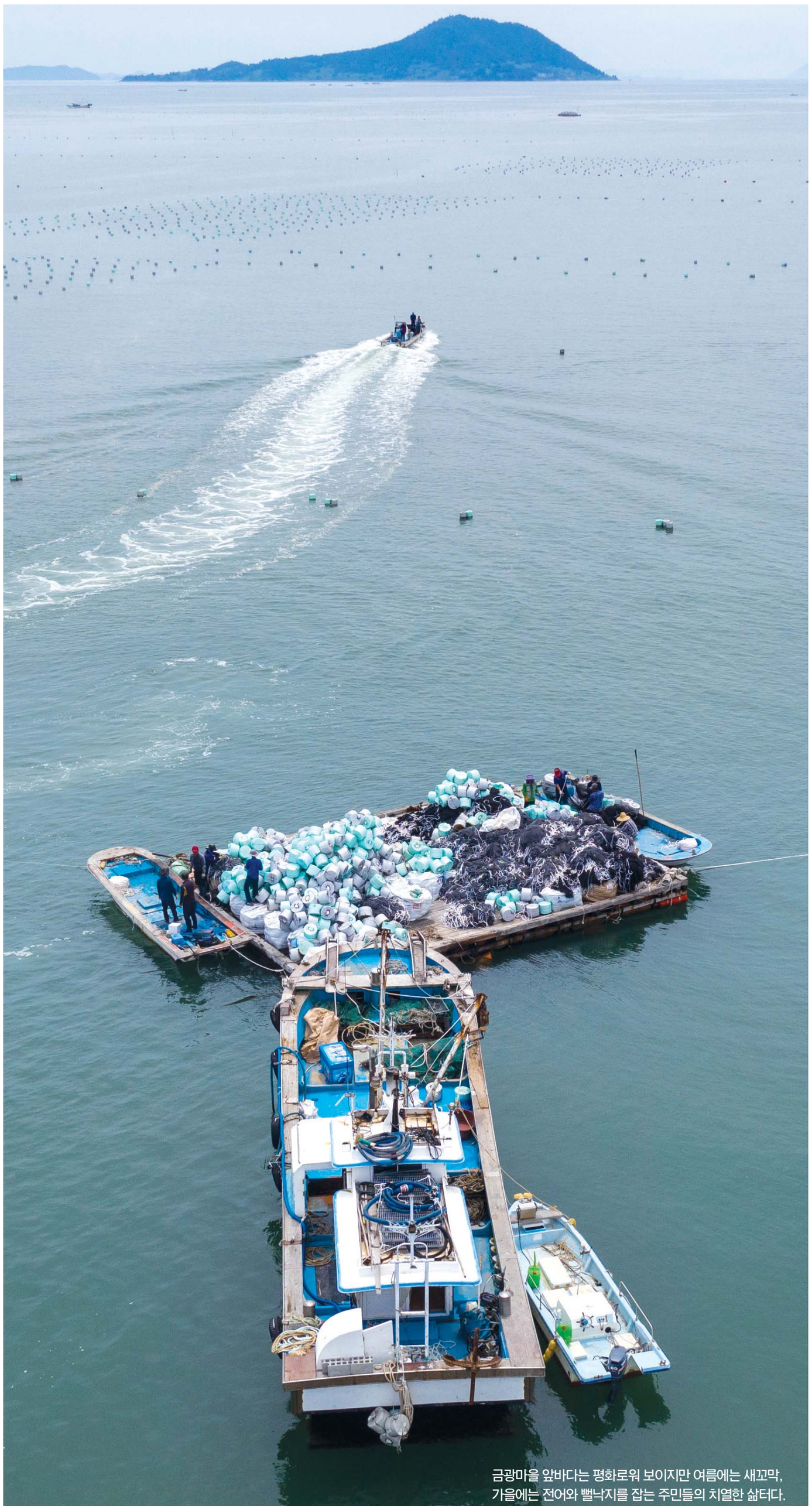
"귀어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마을에 살고 싶다는 도시 사람들의 문의가 자주 와요. 다른 어촌계와는 달리 우리는 텃세 없이 모든 귀어인들을 환영합니다. 이웃끼리 사이가 좋다는 소문이 났는지 올해도 두 집이 이곳에 둥지를 텄어요."

긍정의 힘이 잔뜩 느껴지는 서 계장에게도 고민은 있다. 금광마을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녔지만 다수의 여행객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정부 지원으로 군데군데 끊어진 길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해안가를 따라 마을 어귀에 접어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차량이나 트래킹족이 편리하게 마을을 오갈 수 있는 명품 길을 만들면 마을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금광마을 앞바다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여름에는 새꼬막, 가을에는 전어와 뻘낙지를 잡는 주민들의 치열한 삶터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서울시청 →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광주TG → 화순군 → 보성군 → 회진면 → 금광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보성버스터미널 → 보성버스터미널 정류장 도보이동 → 보성버스터미널 정류장 율포71, 율포71-1~6번 버스 승차 → 군지마을 정류장 하차 → 금광마을

▶ 열차

서울 용산역 → 광주송정역 → 광주송정역 정류장 도보이동 → 광주송정역 정류장 좌석02번 승차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 하차 →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도보 이동 →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보성버스터미널 행 탑승 → 보성터미널 하차 → 보성버스터미널 정류장 도보 이동 → 보성터미널 정류장 율포71, 율포71-1~6번 버스 승차 → 군지마을 정류장 하차 → 금광마을